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제주 방문 관광객을 중심으로

김덕진* 제주대학교

A Survey Research on Promotion of Marine Leisure Sport Tourism: Centering on Tourists of Jeju Island

Kim, Deok-Jin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on participation of marine leisure sport activities and to explore consciousness on promotion of marine leisure sport in subject of visitor of jeju island. Participants were 352 tourist to visit jeju island. Respondents were required to answer for a series of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SPSSWIN 12.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current state on marine leisure sport participation of respondents was low, but the level of consciousness on marine leisure sport activities was very high. The satisfaction level of jeju tour did show positive, and revisiting intention revealed very high. Furthermore, respondents wanted experience tourism best of all, followed by submarine sightseeing, fishing. Also,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marine leisure sport activities and develop tourism goo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draw on many tourist with various marine leisure sport resources, tour goods, and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sport tourism. In addition, it needs to establish pre-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marine sport tourism specialists. In these context, this study suggested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play an important part role in promoting marine leisure sport industry through develop of various marine events and activities including scuba diving, windsurfing, sea fishing, yacht, jet skiing etc.

Key words: marine leisure sports, tourism

* kimdj@cheju.ac.kr

I. 서론

주 5일 근무제 시행,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식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대 등과 같이 사회구조 및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관광행태 또한 자연경관, 역사유적 탐방과 같은 수동적인 관광보다는 스포츠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등과 같은 능동적인 관광행태로 변모하고 있다. 보다 질적인 관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관광 요구에 맞춰 레저스포츠는 관광객의 목적지 결정에 중요한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 추세를 보더라도 과거의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유적 탐방과 같은 정적인 형태의 관광 상품으로는 더 이상 다양해지는 관광객의 취향이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잠재 소비자들이 여행경험이 많아지고 단순히 보는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관광에 만족치 않고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적인 관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러 나라의 관광 상품 중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양명환, 2002).

스포츠관광은 일반적인 관광과는 달리 스포츠 활동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기능, 그리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윤이중,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골프 투어(golf tour), 스키 투어(ski tour), 다이빙 투어(diving tour), 낚시 투어(fishing tour) 등과 같은 스포츠관광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이벤트와 전지훈련 팀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스포츠관광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육성으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창준 등(2006)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제주도를 방문한 총 관광객 수 5,020,275명 중 스포츠와 골프관광객이 1,044,819명으로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유발된 총

소비지출 증대액 5,977억원은 제주도의 관광수입 1조 7,570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포츠 관광이 제주도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보완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골프와 스포츠대회 개최와 같은 내륙지향형 스포츠관광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레저 활동 공간은 산악→스키→골프→해양 등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으며, 상품 라이프사이클 주기상 산악관광은 성수기가 지났다고 할 수 있으며, 90년대 시작된 스키와 골프는 성장기와 성숙기의 중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해양관광인 해수욕, 낚시 등을 제외한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요트 등 역동적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성귀, 1998).

제주도는 4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상 해양관광을 위한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 개발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해양관광 1번지로 성장하기 위해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도 제1회 해양레저스포츠제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립해놓고 실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뿐만 아니라 7대 선도프로젝트 등에 해양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투자유치는 물론 사업 추진이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해외 여행객의 급증과 관광 비수기가 긴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활동적 대안으로써 무엇보다 특색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양레저스포츠가 지역사회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육성방침과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양명환, 2002).

해양레저스포츠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을 때 만약 그 상품을 찾는 관광객이 없다면 상품으로써의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 관광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에 따른 관광 수요와 상품성에 대한 사전 기획과 사후의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개발 주체와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전에 관광 행태나 소비자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보다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품의 실제 수요자들인 관광객들과 상품을 연결시키는 마케팅이 가능하며,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 관광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여러 학자들(김성귀, 1998; 박진권, 2004; 양명환, 김덕진, 2005; 윤이중, 2006; 윤이중, 배성완, 2004; 윤이중, 배성완, 윤기운, 1999; 지삼업, 2002)에 의해 스포츠 관광이 사회·문화·경제적 효과, 시설의 개발 및 확충, 지역주민의 인식, 국제적 인지도 상승 등 긍정적 측면에서의 효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양레저스포츠 의식과 참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양명환, 2002),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정책적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이재형, 권혁동, 2003), 해양레저스포츠관광 개발에 관한 주민찬성도 분석(박진권, 2005), 어촌, 어항을 활용한 해양스포츠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지삼업, 김용재, 이재형, 2006) 등의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지역주민에 한정되어 있거나, 정책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을 뿐 관광 상품을 찾고 소비할 주체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미래의 잠재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성향과 행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이나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시점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의식 수준, 참여 실태, 그리고 향후 해양레저스포츠를 관광자원화 할 경우, 재방문 의도 및 희망 해양관광 상품 등의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해양레저스포츠가 미래의 대안적인 관광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적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이 195명(55.4%), 여성이 157명(44.6%)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 226명(64.2%), 기혼이 126명(35.8%)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20대 미만이 54명(15.3%), 20대 151명(42.9%), 30대 99명(28.1%), 40대 이상 48명(13.6%)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80명(22.7%), 경인권 78명(22.2%), 경상도 74명(21.0%), 전라도 64명(18.2%), 충청도 28명(8.0%), 강원도 28명(8.0%)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예비조사와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친 양명환, 김기윤과 김덕진(2002)이 사용했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김동건(2002)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질문지 중 필요한 문항을 일부 발췌하여 본 연구에 부합되도록 문항 검토와 수정을 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 4문항, 관광 만족 및 행태 3문항,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실태 4문항, 해양스포츠 의식수준과 목적별 관광 실태 5문항, 활성화 요인과 문제점 2문항, 재방문 의도 및 희망관광 상품 2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은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와 사전에 교육된 5명의 조사가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면서 응답시 유의사항과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응답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지를 작성

하였으며, 응답을 완료한 질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 및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이중 기입 등의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35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부 문항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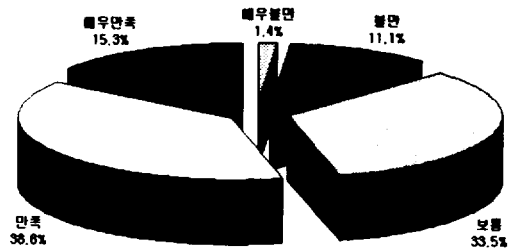


그림 1.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관광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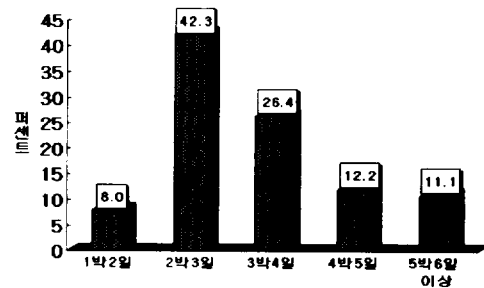


그림 2. 관광객들의 체류기간

III. 연구결과

1. 관광객의 만족도 및 해양관광 형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33.5%), 매우만족(1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을 분석한 결과로써 2박 3일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박 4일(26.4%), 4박 5일(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5박 6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관광객들도 1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성별, 연령에 따른 해양관광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 제주에서 보거나 체험한 해양관광 상품들을 모두 선택하라는 질문에 해수욕(바다수영)이라고 응답한 관광객들이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해양관광지 관람 36.9%, 유람선 해상관광 35.6%, 바다낚시 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레저스포츠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로 나타났다.

표 1. 성별, 연령에 따른 해양관광 실태

(단위: 빈도, %)

경험한 관광상품	성별		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이상
바다낚시	50(25.6)	31(19.7)	81(23.0)	13(24.1)	36(23.8)	22(22.2)	10(20.8)
해수욕(바다수영)	178(91.3)	119(75.8)	297(84.4)	45(83.3)	143(94.7)	72(72.7)	37(77.1)
해양생태체험	24(12.3)	20(12.7)	44(12.5)	10(18.5)	24(15.9)	5(5.1)	5(10.4)
유람선 해상관광	45(23.1)	58(36.9)	103(35.6)	16(29.6)	37(24.5)	36(36.4)	14(29.2)
잠수정 해저관광	23(11.8)	37(23.6)	60(17.0)	9(16.7)	24(15.9)	24(24.2)	3(6.3)
해양스포츠 체험	29(14.9)	12(7.6)	41(11.6)	6(11.1)	17(11.3)	18(18.2)	0(0.0)
해양관광지 관람	85(43.6)	45(28.7)	130(36.9)	17(31.5)	49(32.5)	43(43.4)	21(43.8)
기 타	2(1.0)	12(7.6)	14(4.0)	2(3.7)	4(2.6)	4(4.0)	4(8.3)
계	195(100.0)	157(100.0)	352(100.0)	159(100.0)	151(100.0)	99(100.0)	48(100.0)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여성 모두 해수욕(바다수영)이 각각 91.3%,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성은 해양관광지 관람(43.6%), 여성은 유람선 해상관광(36.9%)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연령이 해수욕(바다수영)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해양관광지 관람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레저스포츠나 해양생태 체험은 모두 저조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실태

<그림 3>은 지난 1년간 해양레저스포츠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로써 32.4%가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6%는 해양레저스포츠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해양레저스포츠 참여경험 유무

<그림 4>는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참여종목을 분석한 결과로써 스킨스쿠버라고 응답한 관광객들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나나보트가 17.5%, 바다낚시와 바다수영이 각각 14.0%, 윈드서핑 12.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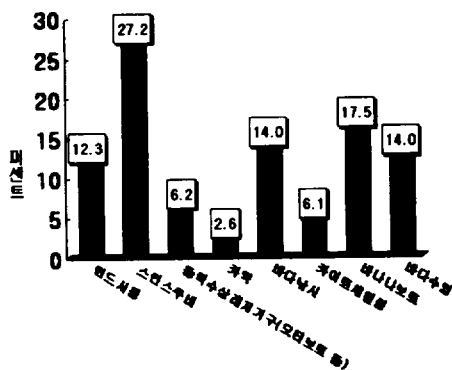


그림 4.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종목 1순위

<그림 5>는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로써 1년에 한 두번이라고 응답한 관광객들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달에 한번(14.0%), 일주일에 한번(13.2%), 두 세달에 한번(12.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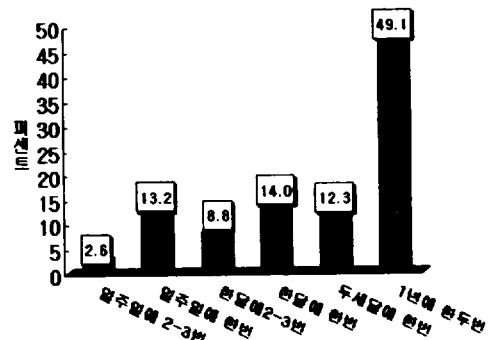


그림 5.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빈도

<그림 6>은 해양레저스포츠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본 결과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관광객들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해소(22.1%), 친구나 이웃의 권유(14.0%), 기술습득을 위해서(11.5%), 판매 박힌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10.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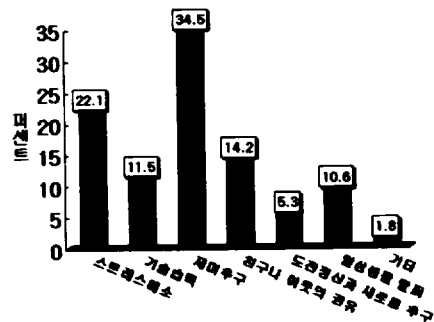


그림 6.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동기

한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편의시설(탈의, 휴식 등)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르쳐 줄 지도자가 없어서(20.7%),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17.8%), 시간이 없어서(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식

(단위 : 빈도, %)

변인	M±SD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해양레저스포츠의 사치성	2.39±.78	33(9.4)	180(51.1)	109(31.0)	29(8.2)	1(.3)
해양레저스포츠의 잠재력	3.65±.84	6(1.7)	20(5.7)	112(31.8)	167(47.4)	47(13.4)
해양레저스포츠의 홍보 정도	3.14±.92	7(2.0)	89(25.3)	121(34.4)	118(33.5)	17(4.8)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의 확충 필요성	3.86±.84	2(.6)	17(4.8)	91(25.9)	162(46.0)	80(22.7)

3.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식 수준과 목적별 관광 실태

<표 2>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해양레저스포츠의 사치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관광객이 60.5%로 나타난 반면 해양레저스포츠가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8.5%에 불과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60.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홍보 정도에 있어서는 38.5%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도 27.3%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66.7%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 외에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목적의 관광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극히 일부인 48명(13.6%)만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 위하여 제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스킨스쿠버, 바다수영, 바다낚시 순으로 나타났고, 방문횟수는 2회가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 찾아온 관광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경로는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았고, 동호인 단체의 초청과 교류, 그리고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서 방문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4.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요인과 문제점

<표 3>은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개발에 따른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1순위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이 27.6%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표 3. 해양스포츠 관광 개발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단위: 빈도, %)

추진과제	1순위	2순위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92(26.7)	44(12.9)
해양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95(27.6)	74(21.7)
해양스포츠 장기발전계획 수립	54(15.7)	67(19.6)
해양레저관광 안내 정보망 구축	29(8.4)	45(13.2)
행정·재정적 지원시스템 구축	22(6.4)	49(14.4)
세계 개선 등 법, 제도 보완	10(2.9)	9(2.6)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28(8.1)	39(11.4)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14(4.1)	14(4.1)

서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26.7%), 해양레저스포츠 장기발전계획 수립(1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로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21.7%), 해양레저스포츠 장기발전 계획 수립(19.6%), 행정·재정적 지원시스템 구축(1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해수욕장이나 해양레저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단위: 빈도, %)

문제점	1순위	2순위
화장실, 샤워시설 부족	100(29.2)	25(8.0)
음식 문제	20(5.8)	28(8.9)
나쁜 수질 상태	17(5.0)	13(4.2)
오락, 스포츠 시설의 부족	61(17.8)	46(14.7)
교통 불편	29(8.5)	61(19.5)
편의시설(주차, 휴식 등)의 부족	21(6.1)	55(17.6)
지역주민의 불친절	16(4.7)	17(5.4)
과도한 요금 청구	71(20.7)	60(19.2)
숙박시설 부족	8(2.3)	8(2.6)

* 결측치 : 1순위(n=9), 2순위(n=39)

<표 4>는 제주도를 방문해서 해수욕장이나 해양레저 시설 이용시에 불편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1순위는 화장실과 샤워시설 부족이 29.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과도한 요금(바가지요금) 청구가 20.7%, 오락·스포츠 시설 부족이 1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는 교통 불편이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도한 요금 청구(19.2%), 편의시설(주차, 휴식 등)의 부족(17.6%) 순으로 나타났다.

5.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시 재방문 의도 및 희망 관광 상품 분석

<표 5>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시 재방문 의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재방문하겠다는 응답이 80.1%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거주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과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재방문하겠다는 응답은 40대 이상이 89.6%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20대가 85.4%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서는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이 93.6%가 재방문하겠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이 85%가 재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표 6>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시 희망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 상품(47.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잠수정 관광(19.3%), 바다낚시(1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과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 바다낚시 상품은 30대(15.2%), 바다수영(해수욕)은 20대 미만(12.5%), 해양생태 체험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관광은 40대 이상이 각각 12.5%와 54.2%로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람선 관광과 잠수정 관광은 20대가 각각 8.6%와 20.5%의 응답비율을 보여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 외로 40대 이상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시 재방문 의도

변인별	사례수 (백분율)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분할표 검정통계량	
전체	352(100.0)	282(80.1)	65(18.5)	5(1.4)		
성별	남성	195(54.4)	162(83.1)	31(15.9)	2(1.0)	$\chi^2=2.521, df=2$ $p=.284$
	여성	157(45.6)	120(76.4)	34(21.7)	3(1.9)	
결혼 유무	미혼	226(64.2)	175(77.4)	47(20.8)	4(1.8)	$\chi^2=2.966, df=2$ $p=.227$
	기혼	126(35.8)	107(84.9)	18(14.3)	1(.8)	
연 령	20대 미만	54(15.3)	30(55.6)	23(42.6)	1(1.9)	$\chi^2=27.893, df=6$ $p=.000$ Cramer's V=.199
	20대	151(42.9)	129(85.4)	19(12.6)	3(2.0)	
	30대	99(28.1)	80(80.8)	18(18.2)	1(1.0)	
	40대 이상	48(13.6)	43(89.6)	5(10.4)	0(.0)	
거 주 지	서울	80(22.7)	68(85.0)	12(15.0)	0(.0)	$\chi^2=31.222, df=10$ $p=.001$ Cramer's V=.211
	경인	78(22.2)	73(93.6)	5(6.4)	0(.0)	
	충청	28(8.0)	23(82.1)	3(10.7)	2(7.1)	
	경상	74(21.0)	51(68.9)	23(32.1)	0(.0)	
	전라	64(18.2)	47(73.4)	15(23.4)	2(3.1)	
	강원	28(8.0)	20(71.4)	7(25.0)	1(3.6)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해양레저스포츠관광 상품 개발시 희망 관광 상품

변인별	사례수 (백분율)	바다낚시	바다수영 (해수욕)	해양생태 체험	유람선 관광	잠수정 관광	해양레저스 포츠 체험	해양관광 지 관람	분할표 검정통계량	
전체	352(100.0)	37(10.5)	24(6.8)	21(6.0)	24(6.8)	68(19.3)	168(47.7)	10(2.8)		
성별	남성	195(54.4)	26(13.3)	11(5.6)	6(3.1)	43(22.1)	100(51.3)	3(1.5)	$\chi^2=24.751, df=6$ $p=.000$ Cramer's V=.265	
	여성	157(45.6)	11(7.0)	13(8.3)	15(9.6)	18(11.5)	25(15.9)	68(43.3)		7(4.5)
결혼 유무	미혼	226(64.2)	28(12.4)	19(8.4)	8(3.5)	17(7.5)	44(19.5)	105(46.5)	$\chi^2=12.242, df=2$ $p=.057$	
	기혼	126(35.8)	9(7.1)	5(4.0)	13(10.3)	7(5.6)	24(19.0)	63(50.0)		5(4.0)
연령	20대미만	54(15.3)	4(7.4)	9(16.7)	2(3.7)	2(3.7)	10(18.5)	25(46.3)	$\chi^2=34.080, df=18$ $p=.012$ Cramer's V=.180	
	20대	151(42.9)	18(11.9)	10(6.6)	5(3.3)	13(8.6)	31(20.5)	72(47.7)		2(1.3)
	30대	99(28.1)	15(15.2)	3(3.0)	8(8.1)	7(7.1)	19(19.2)	45(45.5)		2(2.0)
	40대이상	48(13.6)	0(.0)	2(4.2)	6(12.5)	2(4.2)	8(16.7)	26(54.2)		4(8.3)
거주지	서울	80(22.7)	9(11.3)	10(12.5)	2(2.5)	0(.0)	11(13.8)	48(60.0)	$\chi^2=47.380, df=30$ $p=.023$ Cramer's V=.164	
	경인	78(22.2)	6(7.7)	3(3.8)	3(3.8)	5(6.4)	16(20.5)	41(52.6)		4(5.1)
	충청	28(8.0)	7(9.5)	3(4.1)	8(10.8)	4(5.4)	16(21.6)	32(43.2)		4(5.4)
	경상	74(21.0)	8(12.5)	6(9.4)	4(6.3)	7(10.9)	12(18.8)	26(40.6)		1(1.6)
	전라	64(18.2)	2(7.1)	1(3.6)	0(.0)	4(14.3)	7(25.0)	14(50.0)		0(.0)
	강원	28(8.0)	5(17.9)	1(3.6)	4(14.3)	4(14.3)	6(21.4)	7(25.0)		1(3.6)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 바다낚시 관광은 경상도 거주자들이 12.5%로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다수영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은 서울 거주자들이 각각 12.5%와 60.0%의 응답비율을 보여 가장 희망하는 관광 상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생태 체험은 충청도(10.8%), 유람선 관광은 전라도(14.3%)와 강원도(14.3%), 잠수정 관광은 전라도(25.0%) 거주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관광 상품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잠재고객이라 할 수 있는 제주 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실태, 관광 상품 개발시 재방문 의도 및 희망 관광 상품 등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1. 관광객의 만족도 및 행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수치가 53.9%의 비율을 보여 '불만'과 '매우 불만'을 합한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은 2박 3일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박 4일, 4박 5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당일 관광보다는 주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류형 관광 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명환 등(2002)의 연구에서 약 50%의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이 2박 3일이었고 약 30%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성별, 연령에 따른 해양관광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해수욕(바다수영)이라고 응답한 관광객들이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양관광지 관람, 유람선 해상관광, 바다낚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스포츠 체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양명환 등(2002)의 해양관광지 관람(43.6%), 해상관광(35.6%), 해수욕(31.5%), 바다낚시(30.0), 해양레저스포츠 체험(9.0%)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적인 체험관광 행태 중심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관광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실태

먼저, 지난 1년간 해양레저스포츠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32.4%가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6%는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아직까지 해양레저스포츠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참여종목을 분석한 결과 스킨스쿠버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나나보트, 바다낚시와 바다수영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명환 등(2002)의 바다낚시(28.4%), 바다수영(23.9%), 스킨스쿠버(12.5%)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조사시점이 해양레저스포츠 시즌과는 거리가 있는 동계에 이루어짐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빈도는 1년에 한두번이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집중되어 계절의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레저스포츠에 참여 동기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해소, 친구나 이웃의 권유, 기술습득을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명환(2002)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동기 중 스트레스 해소,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미나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 이유 때문에 스포츠에 참여한다는 선행연구(성창훈, 김병준, 1996; 양명환, 1994; 정용각, 1998)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는 '편의시설(탈의, 휴식 등)이 없어서'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르쳐 줄 지도자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20.7%로 나타났다. 결국, 시설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이 참여계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의식 수준과 목적별 관광 실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광객들의 의식 수준을 분

석한 결과 해양레저스포츠의 사치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시설 및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동진(2002)이 스포츠관광객과 대학생 및 관광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해양스포츠 잠재력이 풍부하고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가 과거와는 달리 대중화 시점에 있고,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인식에 비추어 볼 때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광객들도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설 정비와 확충은 물론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선도프로젝트 등에 계획된 해양관광 정책들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실행해야 하겠다.

한편, 해양레저스포츠 목적의 관광실태는 전체 응답자 352명 중 극히 일부인 48명(13.6%)만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 위하여 제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스킨스쿠버, 바다수영, 바다낚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횟수는 2회가 가장 많았고, 방문 경로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스킨스쿠버와 윈드서핑과 같은 해양레저스포츠를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4.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요인과 문제점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1순위로 해양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해양레저스포츠 장기발전 계획 수립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해양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해양스포츠 장기발전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명환(2002)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윤이중 등(1999)은 사회간접 시설 확충

(30.0%)과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확충(29.5%)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재형과 권혁동(2003)은 관광전문가와 해양스포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관광 지역의 특구화와 정부차원의 시설 투자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과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마리나와 계류장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해양레저스포츠가 주로 이루어지는 해수욕장이나 해양레저시설 이용시 불편사항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과 샤워시설 부족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과도한 요금(바가지요금), 오락·스포츠 시설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이중 등(1999)의 연구에서 화장실 샤워시설 부족(45.9%), 식사·식수 부족(26.5%), 오락·레저스포츠 시설 부족(24.0%)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결국 해양레저스포츠의 주 활동무대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시 재방문 의도 및 희망 관광 상품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시 재방문 의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재방문하겠다는 응답이 80.1%로 나타났다. 연령, 거주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이상이 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20대가 85.4%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서는 경인지역과 서울의 거주자들이 각각 93.6%와 85%가 재방문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희망 해양 관광 상품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 상품(47.7%)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수정 관광, 바다 낚시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예상 밖으로 40대 이상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에 따라서는 서울과 경인지역의 거주자들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 상품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명환 등(2002)의 연구에서 해양관광 상품을 제공하면 제주를 재방문하겠다는 응답이 약 68%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며, 희망 참여 상품도 해양레저스포츠를 가장 선호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과 참여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평소 바다를 접하기 어려운 내륙지방의 거주자들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을 가장 희망하고 이러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재방문하겠다는 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전개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해양레저스포츠 참여는 저조하지만,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관광 상품이 제공된다면 재방문하겠다는 의도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시급히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관광산업은 전 세계 교역의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산업으로는 세계최대의 산업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양명환 등, 2002). 뿐만 아니라 제주의 기후조건과 자연환경은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4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레저스포츠와 관광은 연계가 매우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는 제주 관광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해양관광을 어떻게 개발하고, 해양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중요한 상품이 될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귀결될 수 있다.

이웃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후쿠오카(하카다)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위

터프런트(waterfront) 개발 정책을 통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자연과의 교류(친수 공간)를 추구하는 도시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였다. 아울러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소비생활을 촉진시키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써 활용되고 있다(조재기, 2006).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해양관광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부터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권역 중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권'은 거제와 통영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편, 제주의 경우도 국제자유도시계획의 일환인 선도프로젝트로 해양목장, 마리나 시설 등의 해양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해안에는 8개의 유인도와 55개의 무인도가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다채로운 화산 지형이 발달되어 있어 아름다운 해상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1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최고의 해양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이 낙후된 배경으로 해양관광 상품 부족, 기반시설의 부족, 전문인력 부족, 홍보 부족, 체계적인 관광 정책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해양레저스포츠 상품을 제공하면 약 80%의 관광객들이 재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관광객들이 희망 상품도 유람선이나 잠수정 관광같은 수동적인 관광보다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이나 생태 체험과 같은 능동적인 관광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스포츠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홍보와 시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해양자원과 관광을 연계할 경우,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활성화는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일회성 계획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각종 분석과 검토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시설(계류장, 마리나 등)과 편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은 기후, 해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제주지역에는 총 10개의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해수욕장 이용객은 813,2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제주도, 2006). 그러나 해변에서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동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수영과 윈드서핑, 요트 및 수상레저기구 등을 즐길 수 있는 구역을 분리하고 해변에서는 비치발리볼, 비치사커와 파라솔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과 친수 공간으로써 활용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주로 여름철에 편중되는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의 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본 연구에서도 '가르쳐 줄 지도자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결과뿐만이 아니라라도 국내의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대학교의 교과과정에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초급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교과과정을 강화하고, 아울러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계 및 법제도의 개선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하면서 골프 그린피 인하를 통해 골프관광객이 급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양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및 세계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2006년에 103개의 전국 및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해양과 관련된 스포츠이벤트는 철인 3종 경기대회, 겨울바다팽귤수영대회, 수중촬영대회, 요트대회 등 일부 대회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해양체육대회라 할 수 있는 제2회 해양스포츠제전 유치와 다양한 해양 관련 스포츠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바다를 매개로 제주만의 특색 있는 해양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제주에는 '태우'라는 훌륭한 테마가 있다. 아울러 여행사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등도 절실히 요구된다.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 관광 산업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제주의 특성상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4면이 바다인 제주의 지리적 특성은 해양스포츠의 파라다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제반 시설의 확충,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의 개발과 질적인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과학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해양레저스포츠는 제주의 대안관광 상품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2002). 제주도 스포츠관광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준, 성장훈(1996). 스포츠 동기요인으로서의 재미: 개념 및 관련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2), 99-122.
- 김성귀(1998). 해양 관광 상품 개발의 방향. **관광학연구**, 22(2), 482-488.
- 박진권(2004). 강원도 동해남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양 레저스포츠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6, 15-27.
- 박진권(2005). 해양스포츠관광 개발에 관한 주민찬성도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6(2), 937-946.
- 양명환(1994). 대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5(2), 107-122.
- 양명환(2002). 제주도민의 해양레저스포츠 의식과 참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7(3), 156-175.
- 양명환, 김기윤, 김덕진(2002).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 양명환, 김덕진(2005). 제주도의 스포츠관광 발전 방안에 대한 소고. **제주대학교 체육진흥센터 체육과학연구**, 11, 1-22.
- 윤이중(2006). 세계 스포츠관광(sport tourism)의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2), 271-287.
- 윤이중, 배성완(2004). 전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스포츠관광 개발전략. **한국체육학회지**, 43(5), 113-128.
- 윤이중, 배성완, 윤기운(1999). 전남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1, 207-226.
- 이재형, 권혁동(2003). 해양스포츠관광의 정책적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4(6), 1169-1182.
- 이창준, 박경후, 양명환, 문성종, 고성보, 현정석(2006). **2005년도 스포츠대회 성과분석 및 스포츠 산업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제주도(2006). 제주통계연보.
- 제주발전연구원(2005). **스포츠산업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2004 기준)**. 연구보고서.
- 정용각(1998). 스포츠 참여동기의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1), 113-131.
- 조재기(2006). 한·일 해양관광 산업의 비교연구: 스포츠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리서치**, 17(1), 736-746.
- 지삼업(2002). 대규모 국제행사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육성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1(4), 83-97.
- 지삼업, 김용재, 이재형(2006). 어촌, 어항을 활용한 해양스포츠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17(1), 86-105.

접수일: 2007. 01. 26.

게재확정일: 2007. 02. 02.